

자료제공: 2023. 11. 6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이준형	2133-6205
신문팀장	천세은	2133-6207

사진없음 사진있음

쪽수 : 2쪽

오세훈 시장, 김병수 김포시장 면담…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청취 등

- 김병수 김포시장의 ‘김포시의 서울 편입’ 관련 공식적인 첫 제안 자리
- 편입 논의는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심층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
- 서울시, 편입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 협력·상생 지속

- 오세훈 시장은 11.6.(월) 14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.
-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·북도로 분리될 경우,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‘섬 아닌 섬’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.
-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,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,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.

-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.
-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‘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’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.
-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,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‘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/F’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“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‘시민의 의견’으로,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 “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·경기·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